

## 2021년 북중 무역 평가: 경제난과 무역 정상화

**최장호** 세계지역연구센터 신북방경제실 통일국제협력팀장 (choi.j@kiep.go.kr, Tel: 044-414-1152)

**최유정** 세계지역연구센터 신북방경제실 통일국제협력팀 전문연구원 (choiyj@kiep.go.kr, Tel: 044-414-1187)

## 차 례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2. 북한의 경제난
3. 무역 정상화와 탈(脫)코로나
4. 2022년의 주요 쟁점과 시사점

## 주요 내용

- ▶ 북한은 2021년을 ‘승리의 해’로 규정하는 등 경제성과를 과시하고 있으나, 2020년 2월 이후 지속된 국경봉쇄 정책으로 북한 내 산업생산 둔화 및 경제난이 불가피했던 것으로 판단
  - 북한은 제4차 전원회의(2021. 12. 31)에서 2021년을 ‘승리의 해’로 규정하고 최고인민회의(2022. 2. 8)에서는 2021년 공업총생산액 계획을 148% 수행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정량적 근거가 부족함.
  - 오히려 북중 무역총액이 전년대비 41.0% 감소하고 산업용 원부자재 수입이 감소함에 따라 2021년 북한 경제는 더욱 악화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며, 2022년 경제 건설 관련 국가 예산 배정분도 미미한 수준임.
- ▶ 2021년 북중 무역은 ‘중단’과 ‘제한적 재개’가 반복되었으나, 하반기에는 북한 주요 지역에 방역시설이 완비되고, 「조중국경화물운송 재개 특별방안(21. 10)」이 마련되는 등 북중 무역 정상화에 대비
  - 남포항 방역설비 완비(2020. 3), 「수입물자소독법」 채택, 신의주세관·의주비행장 방역설비 완비(2021. 3)와 함께 평안북도 룡천항의 추가 개항도 준비 중인 것으로 파악됨.
- ▶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제재와 코로나19에 의한 ‘경제적 고립’을 ‘자력갱생’ 정책으로 대응하고, 중앙통제식 무역관리 제도를 강화하고 있어 경제구조가 2016년(대북제재 강화) 이전보다 퇴보할 가능성이 존재
  - 경제 전반에 대한 내각의 관리·통제를 강화하는 한편, 대외 무역에 있어서도 국가 유일무역제도(중앙집권식 무역)로 환원하여 대내외 경제 전반에 대한 중앙의 통제를 강화하고 있음.
  - 북한 대외 무역 활성화를 위해서는 현재의 포지티브 방식(봉쇄, 격리, 중단)의 무역정책 기초를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음.
- ▶ 북한의 ‘버티기 전략’은 외부 충격에 매우 취약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 이러한 정책기조가 지속될 경우 중장기적으로 북한경제의 지속가능성이 낮아질 것으로 평가
  - 현재 북한은 농업부문에서 최소한의 성과가 나오면서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 북한의 대외 경제·외교적 개방이 재개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집단 방역 형성을 통한 북한 내 안정적인 보건·의료 환경 마련이 필수적이므로, 이를 매개로 한 남북 관계 개선과 한반도 위기상황 관리 및 평화 정착 노력이 필요

##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 [북한 경제난 심화]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국경봉쇄로 무역이 대폭 감소하면서 산업생산이 둔화되고 시장 활동이 위축되어 경제난이 가중되고 있음.

- 산업생산 설비(금속), 수입 의존성이 높은 원부자재(특히 촉매 등 화학용품), 농업용 원부자재(비료, 농기계)의 수입이 대폭 줄어들면서 산업생산 둔화가 불가피했을 것으로 판단됨.
- 김정은 총비서의 경제 분야 현지도 횡수 또한 대폭 감소하고 있는 점에서 가시적인 경제성고가 나오지 않고 있음을 간접적으로 추정해볼 수 있음.<sup>1)</sup>
- 방역을 위해 시장(장마당)은 오후만 개장하고, 상인들도 격일제 영업을 하도록 하고 있어 북한 내 시장 활동도 위축된 것으로 보임.<sup>2)</sup>
- 국제사회와 대북 전문가들은 이례적인 봉쇄정책으로 경제난을 겪고 있는 북한에 대규모 인도적 위기가 발생할 것을 우려<sup>3)</sup>하고 있음.

■ [북한의 주장] 국제사회의 부정적인 평가와 달리 북한은 2021년을 ‘승리의 해’로 규정하고 경제성고를 과시하고 있으나,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는 부족한 상황임.

- 제4차 전원회의(2021. 12. 31)에서 2021년을 ‘승리의 해’로 규정하였고, 최고인민회의(2022. 2. 8)에서는 2021년 공업총생산액 계획을 148% 수행했다고 주장함.
- 2022년 국가 예산 또한 2021년 대비 총 1.1% 증액하는 데 그쳐 북한이 주장하는 경제적 성과에 비해 미미한 수준임.
  - 2022년 경제 건설부문 투자는 2% 증액하였는데, 이는 코로나19 이전까지 매년 해당 부문 예산을 5~6%씩 증액해왔던 것에 비해 미미한 수준이며, 아울러 코로나19 이전에 비해 이미 대폭 감축하였던 인민 경제 관련 투자부문에 대해서는 정확한 예산 수치조차 공개하지 않았음.
- 이에 보고에서는 무역 품목 분석을 통해 북한의 경제상황을 평가하고자 함.

■ [북중 무역 재개] 한편 북한이 북중 철도무역을 재개하면서, 러시아·스웨덴과의 협력 재개도 검토하고 있어 북한의 대외협력 재개정책의 향배를 가늠해볼 필요가 있음.

- 코로나19 확산 이후 해상무역을 중심으로 제한적인 무역을 해오다가 최근 중국으로부터 화물열차 무역을 1년 반 만에 재개(2022. 1. 17)하였는데, 육로무역 재개의 폭과 방향성을 분석하고자 함.

1) 김정은 총비서의 경제분야 현지도 횡수가 지속적으로 감소: 2018년 42건, 2019년 24건, 2020년 13건, 2021년 6건. 김일환(2022, 『북한경제 2021년 평가와 2022년 전망』(출판예정), p. 10.

2) Daily NK(2021. 2. 1), 「[北] 국경봉쇄 1년 “수입 ‘뚝’…시장 턱에 겨우 생활 유지”」, <https://www.dailynk.com/%e5%8c%97-%ea%b5%ad%ea%b2%bd%eb%b4%89%ec%87%84-1%eb%85%84-%ec%88%98%ec%9e%85-%eb%9a%9d-%ec%8b%9c%ec%9e%a5-%eb%8d%95%ec%97%90-%ea%b2%a8%ec%9a%b0-%ec%83%9d%ed%99%9c-%ec%9c%a0%ec%a7%80/>(검색일: 2022. 2. 11).

3) 유엔식량농업기구(FAO)는 북한에 인도적 위기가 발생할 가능성에 대해 전망, BBC NEWS 코리아(2021. 7. 6), <https://www.bbc.com/korean/news-57734395>(검색일: 2022. 3. 8).

- 장기화된 코로나19에 적응하면서 나름의 통관검역 대책을 마련한 상황에서, 해상무역에 활용되는 북한 남포항이 포화상태에 이르러 새로운 무역항 개항이 필요한데다가, 2~4월에는 주요 행사<sup>4)</sup>도 많아 해외에서 수입해야 할 물자들을 빠르게 반입할 필요가 있음. 이에 조달 시간이 짧고 운송비용이 저렴해 해상무역에 비해 장점이 많은 육로무역 재개에 대한 필요성을 절감하였을 것으로 사료됨.
- 한편 러시아와 무역 재개를 논의<sup>5)</sup>하고 있는데, 그 배경과 의도를 분석할 필요가 있음.
- 스웨덴대사관도 북한에서 일시 귀국(2020. 8)한 이후 외교관을 평양에 복귀시키는 문제를 북한과 협의 중<sup>6)</sup>이어서 대외협력 재개의 폭과 속도를 기해볼 필요성이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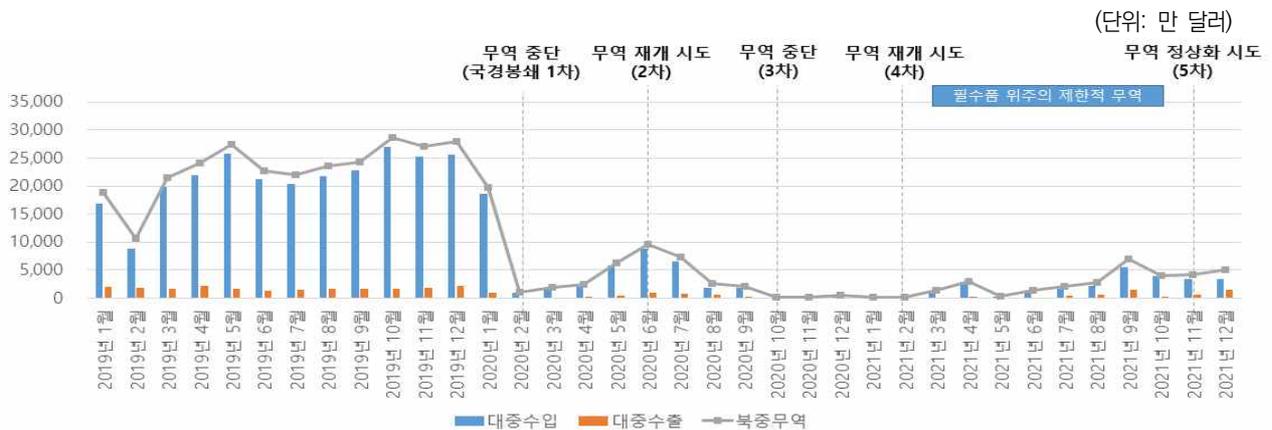
■ [연구의 목적] 이에 본고에서는 2021년 북중 무역 동향과 통계를 분석하여 북한경제의 지속가능성과 탈(脫)코로나 정책의 방향성을 평가하고자 함.

## 2. 북한의 경제난

■ [무역 동향] 코로나19 유입을 막기 위해 북한이 국경을 봉쇄하면서 북중 무역은 중단과 제한적 재개를 반복하고 있는데, 2021년 하반기로 접어들수록 수입이 소폭이나마 증가하는 것으로 보아 최근에는 북한이 코로나19에 적응하면서 나름대로 대응하는 양상을 보임.

- 코로나19 유입을 막기 위해 국경을 봉쇄하고 무역을 사실상 중단하였는데, 방역 능력과 접경지역의 코로나 19 발생 정도에 따라 무역 규모를 제한하고 필수품 위주로 무역을 재개하였음.

그림 1. 코로나19 위기 이후 북중 무역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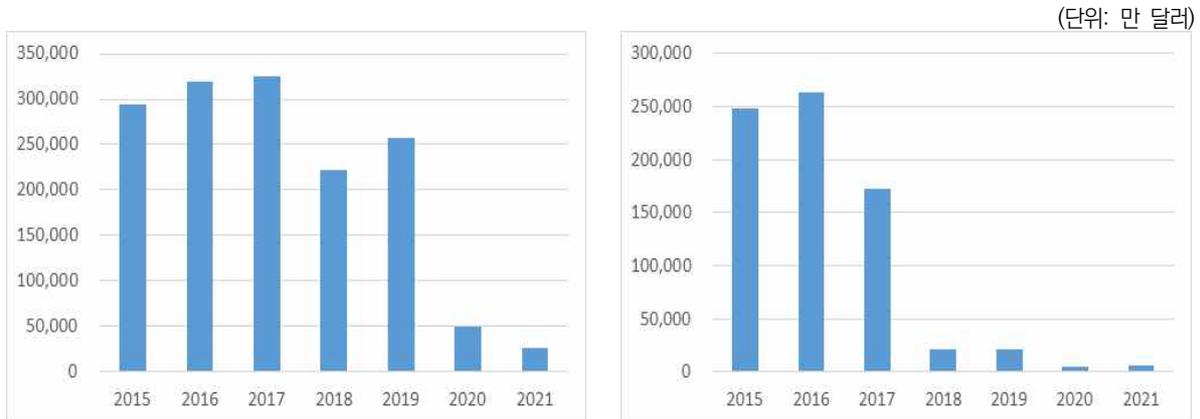
주: 코로나19 발생 이후 북중 무역은 1~5차례에 걸친 정책기조 변화를 보였음.  
자료: 중국해관통계를 가공하여 저자 작성.

- 4) 최고인민회의(2022. 2. 5), 김정일 80회 생일(2022. 2. 16), 김일성 110회 생일(2022. 4. 15) 등 대규모 군중 동원 행사가 예정되어 있음.
- 5) 「북, 중국 이어 러시아와도 교역재개 징후... 잇단 고위급 접촉(종합)」(2022. 2. 9),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220209014051504>(검색일: 2022. 2. 18).
- 6) 「스웨덴 “평양주재 대사관 복귀 논의 중...스위스 “대북지원 조속히 재개할 것”」(2022. 2. 3), VOA, <https://www.voakorea.com/a/6423887.html> (검색일: 2022. 2. 25).

■ [무역 감소] 그러나 국경봉쇄가 장기화되고 무역이 줄어들면서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이 커지고 있음.

- 2021년 북중 무역총액은 3억 1,804만 달러로 전년대비 41.0% 감소하였는데, 방역과 접경지역 통제가 강화된 것이 주요 원인임.)
  - 대중 수입은 2억 6,016만 달러로 전년 4억 9,106만 달러 대비 47.0% 감소하였는데, 중간재와 자본재 수입이 급격하게 감소하면서 중공업 등 기간산업과 경공업의 생산량 감소가 불가피한 상황
    - ※ 현재 북한의 대중 수입액은 평년(2015~17년)의 약 10% 수준임.
  - 대중 수출은 5,787만 달러로 2020년 4,800만 달러 대비 20.6% 증가하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출액 규모가 워낙 작아 북한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에는 역부족
    - ※ 2021년 대중 수출 증가는 9월과 12월 대중 수출이 증가한 것에서 기인하였음.

그림 2. 2015~21년 연도별 대중 수입(좌)과 수출(우)



자료: 중국해관통계를 가공하여 저자 작성.

■ [수입과 북한경제 수요] 수입을 분석한 결과 북한은 농업생산 정상화와 코로나19 방역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농업 이외의 산업생산 활동은 부진한 것으로 추정해볼 수 있음.

- 2021년 전체 수입에서 농업 22.3%, 화학 31.8%, 플라스틱/고무 25.8% 등이 전체 수입의 79.9%를 차지하는데, 대부분이 식품과 방역 관련 품목임.
  - 농업부문 수입 품목에는 기호품과 소비재가 많았는데 담배 41.1%, 식물성 기름 30.1%,<sup>8)</sup> 유제품 13.0%,<sup>9)</sup> 설탕 8.1% 등이며, 밀가루 수입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아 식품 제조보다는 직접 소비를 위한 것으로 추정
  - 화학은 농업 관련 품목 35.2%,<sup>10)</sup> 방역 관련 품목 28.5%<sup>11)</sup> 등 농업용품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수입의

7) 2020년에는 북한이 코로나19를 다른 전염병(메르스, 사스)과 마찬가지로 수개월 이내에 해결될 것으로 전망하고 2020년 6월을 전후하여 북중 무역의 전면 재개를 시도하였으나, 접경지역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인원이 증가하자 국경지역을 완전 봉쇄(2020년 10월)하고 방역기조를 변경함(2020. 12~2021. 2 전원회의, 최고인민회의의 결정 사항). 2021년 상반기에는 접경지역 통제를 강화하였으나, 하반기에 접어들면서 점진적으로 무역을 확대하였음.

8) 콩기름(대두유) 11.7%, 콩기름용 콩 10.2%, 팜유 8.2%.

9) 분유(저지방 분유, 전지방 분유) 10.9%, 유아용 분유 2.1% 등인데, 이들 제품은 국제기구가 인도적인 목적으로 북한에 지원한 것을 북한이 수입하였을 개연성이 큼.

10) 농업 관련 품목 중 화학비료 15.8%, 질소비료 13.5%, 살충제 5.9% 등임.

11) 방역 관련 품목 중 의약품 22.6%, 계면활성제(비누나 세제 등의 원료) 6.0% 등인데, 의약품은 국제기구가 인도적인 목적으로 북한에 지원한

존도가 높은 산업용 원료나 촉매 등의 수입이 미진하여 산업생산이 상당부분 중단된 것으로 추정됨.

- 플라스틱/고무는 운송용 타이어 22.6%, 천연고무 15.2%, 에틸렌 14.4%, 농업용 비닐 13.5% 등으로 산업용 수요보다는 운송과 농업 수요에 방점을 두고 수입이 이루어졌음.

표 1. 2021년 수입의 산업별 비중

(단위: %, 만 달러)

구분	2015~17년 평균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비중(2021년 산업별 수입액 ÷ 2015~17년 산업별 평균 수입액)
농업	12.1	28.2	26.8	44.9	22.3	15.3
화학	5.0	11.3	10.0	13.9	31.8	52.9
전자	10.5	0.3	0.1	0.0	0.0	0.0
기타	4.8	8.1	9.8	6.4	2.6	4.5
섬유/의류	24.7	27.5	29.4	14.1	8.5	2.9
기계류	8.2	0.3	0.0	0.1	0.0	0.0
수산	2.8	3.3	2.2	1.0	0.0	0.0
광업	4.7	1.8	1.9	1.6	3.3	0.0
플라스틱/고무	8.7	12.5	13.1	12.2	25.8	6.0
금속	7.2	0.1	0.0	0.0	0.0	0.0
목재	4.2	6.6	6.7	5.7	5.7	11.3
운송수단	7.2	0.1	0.0	0.1	0.0	0.0
총계	312,786	221,687	257,381	49,106	26,016	0.0

자료: 중국해관통계를 가공하여 저자 작성.

- 수입의존도가 높은 산업용 원부자재 수입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아, 산업생산이 대폭 감소했을 것으로 추정됨.
  - 제철용으로 사용되는 피치와 코크스 수입은 평년의 1/3 수준에 그침.<sup>12)</sup>
  - 전자(모니터, 배터리, 전동기, 변압기, 패널 등), 설비(밸브, 터빈, 자동처리장치, 냉장고 등), 건축용 플라스틱이나 건축용 자재 등은 거의 수입되지 않아 산업 전반에서 원부자재가 부족하고 설비가 노후하면서 생산이 둔화되었을 것으로 추정

표 2. 2021년 북한의 대중 수입 품목(10순위)

(단위: 만 달러)

순위	품목명	용도	HS4	금액
1	의약품*	[화학] 의료용품(방역용품)	3004	1,864
2	담배	[농업] 기호식품	2403	1,645
3	고무 타이어	[플라스틱/고무] 화물차와 자동차 부품	4011	1,516
4	화학비료	[화학] 작물 생산량 증대	3105	1,304
5	질소비료	[화학] 작물 생산량 증대	3102	1,117
6	천연고무와 기타 고무류	[플라스틱/고무] 산업용·생활용품 제작	4001	1,016
7	에틸렌의 중합체	[화학] 각종 용기, 포장용 필름, 섬유, 파이프, 패키징 등 제작	3901	965
8	플라스틱 판, 시트 등	[플라스틱/고무] 농업용 비닐	3920	904
9	대두유	[농업] 식물성 기름으로 조리 또는 직접 섭취	1507	814
10	탄산염	[화학] 도로, 시멘트 제조, 종이 코팅, 플라스틱, 페인트 등 제작	2836	676

주: \* 국제기구 지원일 가능성이 높음.  
자료: 중국해관통계를 가공하여 저자 작성.

것으로 추정됨.

- 12) 2015~17년 평균 985만 달러, 2018년 1,047만 달러, 2019년 964만 달러, 2020년 227만 달러, 2021년 391만 달러 등의 피치와 코크스를 수입함.

- [수출과 산업생산 전환] 수출 역시 품목 수와 금액이 적어 산업생산의 어려움을 짐작할 수 있는데, 수출 제재가 강화된 이후 4년이 지났지만 효과적인 산업 전환(신규 수출품목 육성)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 수출은 수입에 비해 코로나19 방역과의 연관성이 적으나, 수입 수준으로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어 북한의 열악한 산업 전환 능력을 짐작해볼 수 있음.
  - 수입을 위해 북한 화물선이 빈 배로 가서 화물을 실어오고 있는데, 이는 비용 측면에서 낭비임.
  - 2018년 제재 본격화 이후 신규 수출품을 육성하지 못하고 있는데, 위기에 대응하여 다른 산업 분야로 전환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함.
- 소액으로 수출되고 있는 품목들도 생산 확대가 어려운 품목이 대부분임.
  - 합금철(페로실리콘, HS7202) 2,682만 달러(3,709만 톤)를 수출하였는데, 합금철 생산에는 에너지 소비가 큰 전기 용광로를 사용해야 해서 북한의 전력 사정을 고려하면 수출을 확대하기 어려움.
  - 전기에너지(HS2716)는 1,694만 달러를 수출하였는데, 이는 압록강 수풍댐에서 생산된 전기 중 일부를 중국에 송전한 것으로, 생산량이 압록강 수량에 영향을 받으므로 수출 확대에 제약이 큼.
  - 갈륨비료(HS3104)는 북한에 매장된 천연모, 고회석, 초무연탄으로 생산된 것의 일부를 수출한 것인데, 북한 내 생산설비(미광기, 분쇄기)가 노후하여 대규모 생산과 수출이 어려움.
- 신규 수출 품목은 생사, 견 웨이스트, 감자가루 등이 있으나, 모두 농업 생산품으로 공급이 비탄력적이며 생산 확대가 어려움.
- 2021년 7~10월 동안 작은 규모이지만 일부 위탁가공(임가공) 품목의 수출이 재개되었으나, 규모가 작아 경제적인 의미를 부여하기 어려움.
  - 휴대용 시계 무브먼트(HS9108)가 334만 달러(7월, 9월) 수출되었으나, 새로운 원자재 수입이 관찰되지 않아 신규 수출 계약이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어려움.
  - 상위 10순위에 포함되지는 않지만, 가발·가수염·속눈썹(HS6704) 37만 달러를 수출(8월)하였는데, 95%가 인모(人毛)를 원료로 하고 있어 생산 확대에 한계가 있음.
  - 한편 맥주(HS2203)가 12만 달러(7, 10, 12월) 수출되었는데, 북한에서 원액을 수출한 뒤 중국에서 이를 가공하여 내수시장에 판매하고 있는 것임.

표 3. 2021년 북한의 대중 수출 품목(10순위)

(단위: 만 달러)

순위	품목명	HS4	3년 평균 (2015~17)	2018	2019	2020	2021
1	합금철(페로실리콘)	7202	1,808	2,831	3,105	1,073	2,682
2	전기에너지	2716	716	1,139	1,143	1,185	1,694
3	휴대용 시계 무브먼트	9108	183	3,111	4,919	679	334
4	생사(비단제품)	5002	37	0	0	0	272
5	감자가루	1105	0	0	0	0	252
6	갈륨비료	3104	85	157	118	46	178
7	탄화물	2849	17	124	197	16	108
8	견 웨이스트(비단제품)	5003	43	0	1	0	103
9	텅스텐광과 그 정광	2611	161	1,849	1,234	455	60
10	관악기	9205	5	19	16	15	44

자료: 중국해관통계를 가공하여 저자 작성.

■ [무역과 경제정책 수출입 분석 결과 최근 북한의 경제정책은 '농업·방역'에 방점을 두고 있으며, 그 외 산업에서는 정책목표가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

- 수입 품목이 농업과 방역 부문에 집중되어 있으며, 다른 산업은 수입 원부자재 투입 자체가 적음.
- 산업생산 정상화를 위해 '농업, 금속, 화학' 부문 우선 생산, 주민들의 생활 안정화를 위한 '인민 소비품과 농업'의 공급 보장을 강조하였으나, 농업부문에서만 소규모 성과를 낸 것으로 평가됨.<sup>13)</sup>
  - 한국 농촌진흥청은 2021년 북한의 식량 생산량이 469만 톤으로 2020년의 440만 톤 대비 7% 증가했다고 추정<sup>14)</sup>
  - 2020년 식량 생산량이 440만 톤으로 이로 인한 심각한 인도적 위기가 발생하지는 않았는데, 2021년에는 2020년에 비해 식량 생산량이 증가하였으므로 농업부문에서 성과가 있었음을 알 수 있음.
- 결과적으로 정책적으로 장려한 농업부문에서 소기의 성과를 거두면서 최악의 경제난은 면한 것으로 판단됨.

■ [중앙 통제 강화] 한편 위기상황에서 내부 자원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법·제도 개선과 중앙 통제 강화를 시도하고 있는데, 이는 2018년부터 추진되었던 '국가의 통일적 지도와 전략적 관리' 경제기조의 연장선상에서 추진되고 있음.

- 경제난에 대한 대응으로 '자력갱생'을 천명하고 폐쇄경제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데, 한정된 자원의 효율적 배분과 활용을 강조하면서 '재자원화', '순환경제형 기업', '절약형 기업' 추구 등 내부 자원을 최대한 동원하여 제재상황과 국경봉쇄 상황을 타파해 나가고자 시도하고 있음.
  - 재자원화는 자력갱생의 핵심수단으로 원료, 자재의 국산화와 함께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정책이며, 순환경제형·절약형 기업정책 또한 각 기업의 폐기물 혹은 불필요한 원부자재를 필요로 하는 다른 기업에 제공하여 한정된·가용가능한 자원의 순환을 통해 자원의 효율적 분배를 추구하는 정책임.
- 경제 전반에 대한 내각의 관리·통제를 강화<sup>15)</sup>하면서 대외무역 관련 법제도 또한 국가 유일무역제도(중앙집권식 무역)로 환원하여 대내외 경제 전반에 대한 중앙의 통제를 강화하고 있음.
  - 경제체제 운용 방식을 '군·특수부문 중심(김정일 위원장 방식) → 내각 중심(김정은 총비서 방식)'으로 전환하고 국가 통제 밖에서 이루어지던 경영, 무역, 시장 활동 등의 특수부문을 내각 중심으로 통제함으로써 무역 감소의 악영향을 만회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sup>16)17)</sup>

13) 노동신문(2022. 1. 8)을 참고하여 최고인민회의의 김덕훈 총리의 보고 사항을 정리.

14) 농촌진흥청 보도자료(2021. 12. 17), 「올해 북한 식량작물 469만 톤 생산, 전년 대비 29만 톤 증가」, [http://www.rda.go.kr/board/board.do?boardId=farmprmninfo&prgId=day\\_farmprmninfoEntry&currPage=1&dataNo=100000775548&mode=updateCnt&searchSDate=&searchEDate=&totalSearchYn=Y\(검색일: 2022. 2. 12\)](http://www.rda.go.kr/board/board.do?boardId=farmprmninfo&prgId=day_farmprmninfoEntry&currPage=1&dataNo=100000775548&mode=updateCnt&searchSDate=&searchEDate=&totalSearchYn=Y(검색일: 2022. 2. 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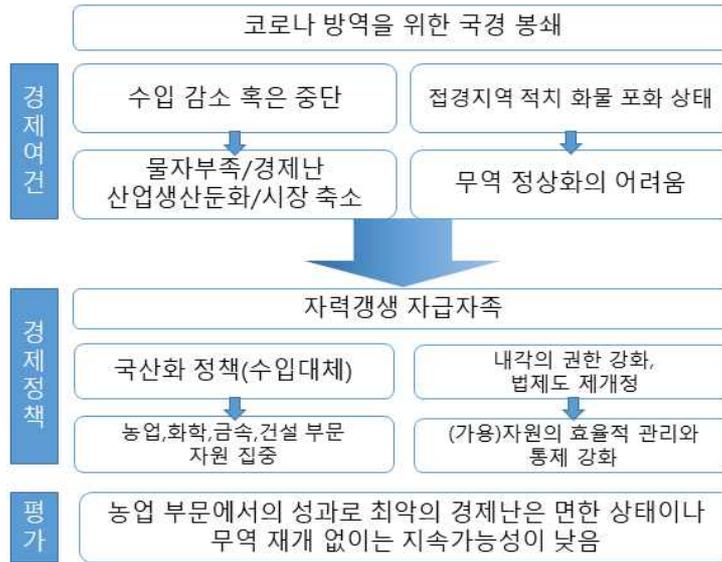
15) 노동신문(2021. 1. 1)에서 “당중앙위원회는 올해의 투쟁성과를 평가하면서 극난한 환경에서 경제를 안정화시킬 수 있는 방법, 자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하나하나 적극적으로 찾아내고 실행하고 있는 것, 이것이 경제발전에서의 긍정이며 이 과정이 곧 전면적 국가발전을 향한 우리식 사회주의의 힘 있는 전진과정으로 된다고 평가하였다”라고 밝히면서, 국경봉쇄 속에서도 나름의 방식대로 해결방법을 찾아가고 있다고 밝힘.

16) 제제가 본격적으로 강화되기 시작한 2018년부터 '국가의 통일적 지도와 전략적 관리를 실현'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음.

17) 조선중앙통신(2021. 2. 12) 김정은 총비서는 전원회의(2021. 2. 8)에서 특수·특권 기관의 행태를 비판하면서 내각을 중심으로 경제를 운용할 것을 주문하였는데, 구체적으로 “체도와 관료주의, 부정부패가 개별적인 사람들이 저지르는 반당적, 반인민적 행위라면 단위 특수화와 본위주의는 ‘부분과 단체의 모자를 쓰고 자행되는 더 엄중한 반당적, 반국가적, 반인민적 행위’이며 우리 당의 인민대중제일주의 정책을 실현하고 주체적 힘, 내적동력을 다지는 데서 제일 장애로 된다고 낙인 ... 국가와 인민의 이익을 침해하고 당의 결정지시 집행을 태공하는 단위 특수화와 본위주의 현상을 더 이상 그대로 둘 수 없으며 당권, 법권, 군권을 발동하여 단호히 쳐갈겨야 한다는 데 대하여 특별히 언명...” 하겠다고 언급하면서 군과 특수부문의 독자적인 행보를 비판함.

- [경제상황 평가] 이상의 논의를 정리하면 2021년 북한은 농업부문에서 어느 정도 성과가 나오면서 최악의 경제난은 면했으며, 위기상황을 관리하기 위하여 중앙집권적인 통제를 강화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음.

그림 3. 2021년 북한의 경제 여건과 정책



자료: 저자 작성.

- [북한경제의 지속가능성] 북한은 대외협력을 통한 경제성장을 포기하고 제재·코로나19 버티기 전략을 펴고 있는 가운데, 최악의 경제상황은 면한 것으로 보이나 외부 충격에 매우 취약한 구조를 갖고 있어 중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경제 여건은 아닌 것으로 판단됨.

- ‘국경봉쇄 장기화’로 인해 산업생산이 감소하고 생필품 부족이 만연할 개연성이 큼.
- 산업설비 노후화와 개보수가 중단된 상황이 지속되면서 기업과 공장의 생산설비 개보수 비용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경제성장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것임.
  - 산업용기계·전자기기, 운송수단은 모두 제재 품목이며, 원유 및 정제유 제품 또한 대북 반입 물량 제한 품목이어서 대외 관계 개선 없이는 현재의 위기상황 지속이 불가피함.
- 특히 대규모 ‘자연재해’가 발생할 경우 북한의 ‘버티기 전략’이 실패하고 인도적 위기가 발생할 개연성이 큰데, 북한은 재해에 대응할 수 있는 긴급복구 장비와 물자, 운송수단이 부족한 상황임.
  - 북한은 물길공사 외에는 홍수에 대응할 수 있는 별다른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데, 최근 한반도에서도 기후변화로 집중호우와 폭염 등의 기상이변이 이어지는 등 재해 노출 위험이 증가하고 있음.

- [지속가능한 경제의 조건] 북한경제가 최소한의 지속가능성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무역을 정상화하고 수입의존도가 높은 원부자재를 확보하여 산업생산을 정상화해야 함.

- 무역을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코로나19 방역에 대한 대안이 마련되어야 함.
- 또한 산업생산에 필요한 원부자재를 원활하게 공급받기 위해서는 UN 대북제재에서 금지하고 있는 전자제품, 설비, 운송수단의 대북 수출과 광물(무연탄), 섬유·의류, 농수산물 등의 대북 수입제재 해제가 수반되어야 함.

### 3. 무역 정상화와 탈(脫)코로나

- 북한 당국도 무역 정상화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先방역시설 구축 後무역재개’ 순(順)으로 무역을 확대하고 있으나, 접경지역의 코로나19 상황이 악화되면서 2021년에는 남포항 중심의 해상무역을 주로 운용하였음.
- 대중 수입의 경우, 해상무역만을 운용한 상반기 수입액이 5,677만 달러, 하반기 수입액이 2억 340만 달러로 시간이 경과할수록 코로나19 방역에 적응하여 대응하고 있으나, 무역 확대가 어렵고 과도한 물류비를 부담하는 문제에 봉착함.
  - 북한의 남포항에는 2020년 3월에 방역설비 설치가 완료되어 최근 북한 해상무역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sup>18)</sup>
  - 만약 북한이 남포항만 운용할 경우, 연간 수입액이 최대 4억 680만 달러<sup>19)</sup> 정도일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는 UN 대북제재 강화기(2018~19년)의 평균 수입액 21억 3,135억 달러의 20%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므로, 산업 정상화를 위해서는 방역설비가 갖추어진 세관을 추가 확보해야 함.
  - 북한은 수입 화물을 최소 15일에서 최대 90일까지 방역 격리를 하는데, 한 번 수입이 이루어져야 적장이 포화상태가 되면 격리기간이 완전히 경과한 뒤에야 다음 수입이 이루어질 수 있는 상황이라 수입 확대에 제약이 큼.
  - 또한 해상무역의 경우 육상무역에 비해 운송 시간이 길고 거래 규모가 큰 단점이 있는데, 북한은 일방적인 수입<sup>20)</sup>만 하고 있어 운송비용 부담이 상대적으로 크며, 경제상황 또한 좋지 못해 대규모 거래에 어려움이 있음.
- 이에 북한은 접경도시인 신의주를 중심으로 의주공항과 룡천항에 방역장과 설비를 갖추고 무역 경로 다양화를 시도하였으나, 접경지역 코로나19 상황이 악화되면서 연중에 재개하지 못했음.
  - 남포항 외에도 의주비행장(2021년 3월경)과 룡천항(2021년 10월경)에 방역장과 시설을 마련하였으며, 평양 국제화물열차역에도 방역설비를 설치(2021년 4월경)하였음.
  - 북중이 「북중국경화물운송 재개 특별방안(2021년 10월)」을 발표하여 북중 간 화물 운송방안과 국경 출입 통과 차량에 대한 검사 절차, 방역지침 등에 합의한 이후 11월 육로무역이 재개될 것으로 전망되기도 하였음.
  - 하지만 랴오닝성에 2021년 11월 4~27일 기간 두 자릿수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열차무역이 재개되지는 못하였음.

표 4. 2020년 이후 접경지역 통관·통행에 대한 북한과 중국의 주요 조치와 동향

날짜	주요 사건	주요 내용
2020. 2~4	北, 국경봉쇄	· 국경봉쇄에 따라 북중 간의 무역과 인적 왕래가 거의 중단 (제한적으로 이루어짐)
2020. 5~8	北, 국경봉쇄 제한적 완화	· 북중 접경지역 도시에서의 코로나19 확산세 완화에 따라 북중 무역이 재개되었으나, 다시 중단
2020. 9~10	북중 접경 개방합의 결렬	· 북중 국제열차 재개 합의 결렬
2020. 10	北, 국경 再봉쇄	· 북중 무역 사실상 중단(2021년 6월까지 이어짐)

18) 연합뉴스(2020. 3. 21), 「북한, 코로나19에 항구·국경 고강도 검역…긴급협의회 열어」, <https://www.yna.co.kr/view/AKR20200321024200504> (검색일: 2022. 3. 1).

19) 이는 북한의 하반기 수입액을 두 배하여 산출한 금액임. 이 외에도 최대 수입을 기록한 4/4분기 수입액을 네 배하여 산출하는 방법도 있으나, 금액에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음.

20) 수입만 하는 경우에는 수입과 수출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경우에 비해 2배의 물류비를 부담하여야 함.

날짜	주요 사건	주요 내용
2021. 3	<b>북중 해상 무역 제한적 재개</b>	· 해상을 통한 북중 무역이 아주 제한적으로 이루어짐 (주로 대중 필수품 수입)
	中, 신압록강대교 안전검사 입찰 공고	· 중국 랴오닝성 정부-신압록강대교 개통에 필요한 교량 안전검사 입찰 공고
	北, 「수입물자소독법」 채택	·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제14기 제13차 전원회의(3. 3) · 수입물자 소독 의무 및 관련 절차, 위반 시 처벌 내용 등 규정
	北, 신의주 세관: 화물차량 용 방역설비 설치	· 화물트럭 방역설비 설치 완료(화물과 차량 동시 소독 및 검사 가능) · 신의주 세관 소독장 보온 소독창고 준공검사 최종 승인
2021. 3. 17~25	北 의주비행장 대규모 검역 시설 완공	· 해외 출입국자와 화물에 대한 코로나19 전용 방역시설 완비 ※ 남포항 적치 화물 해소를 위한 대체 통관시설 구비 및 국제 관광 산업 재개를 위한 준비 작업으로 판단됨.
	<b>중국 단둥-북한 신의주 육로통관 일시 재개</b>	· 북중 간 화물트럭 운행 임시 재개 후 중단 (인적 왕래는 여전히 제한)
2021. 10	中, 「조중국경화물운송 재개 특별방안 발표」	· 북중 간 화물 운송방안과 국경 출입 통과 차량에 대한 검사 절차, 방역지침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명시
	北 평안북도 룡천항 추가 개항 준비	※ 남포항 적치 화물 해소를 위한 준비 작업으로 판단됨.
2021. 11. 3	中, 단둥항만 건설 입찰 공고	· 신압록강대교 단둥항만 건설사업 전 과정*을 관리할 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 공고 게시(랴오닝성 단둥시 정부조달 입찰 사이트) * 단둥항만 건설의 기획 단계부터 시공 준비, 시공, 준공검사, 보수, 사업 후 평가 단계까지의 모든 과정
2022. 1. 17	<b>중국 단둥-북한 신의주 철도 무역 재개</b>	· 국경봉쇄 해제 및 철도무역 재개에 따라 북중 무역의 점진적인 재개 기대감 상승

자료: 언론 동향을 바탕으로 저자 정리.

■ [무역 경로 다양화] 한편 2017년 북한이 제재 강화 이후 무역 다양화를 시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확산 이후 소수의 지역(省)에 대한 무역의존도가 커지고 있음.

- 북한의 무역 지역 다각화 정책에 따라 그동안 북중 무역의 중심지였던 랴오닝성, 지린성과 함께 2017년부터 광둥, 푸젠, 산둥 등지와와의 교역도 증가하는 추세였음.
  - 지역 다각화 정책은 대북제재 강화로 인한 접경지역에 대한 감시 강화에 대한 대응책의 일환으로 평가
- 그러나 코로나19로 육로무역이 중단되고 해상무역에 대한 의존도가 커지면서 광둥과 산둥성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으며, 전체 무역에서 이들 성이 차지하는 비중도 커지고 있음.

표 5. 2021년 북한의 대중 지역별 수입(상위 3개 성(省))

(단위: 만 달러)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지역	금액	지역	금액	지역	금액	지역	금액	지역	금액
상위 3개 성	랴오닝	106,852	광둥	81,928	광둥	86,148	랴오닝	26,151	랴오닝	16,027
	강서	48,445	랴오닝	70,152	랴오닝	83,140	광둥	12,492	산둥	4,503
	광둥	46,914	지린	17,946	지린	26,836	푸젠	4,657	광둥	2,089
비중*	62.3		76.7		76.2		88.2		86.9	

주: \* 비중은 상위 3개 성의 수입액이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임.

자료: 중국해관통계를 가공하여 저자 작성.

표 6. 2021년 북한의 대중 지역별 수출(상위 3개 성)

(단위: 만 달러)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지역	금액	지역	금액	지역	금액	지역	금액	지역	금액
상위 3개 성	랴오닝	63,186	지린	10,594	지린	13,285	랴오닝	2,252	랴오닝	4,591
	지린	46,282	랴오닝	7,437	랴오닝	4,426	지린	1,401	지린	623
	산둥	24,685	광둥	2,005	안후이	1,470	광둥	654	산둥	381
비중*	77.5		94.0		89.1		89.7		96.7	

주: \* 비중은 상위 3개 성의 수입액이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임.  
자료: 중국해관통계를 가공하여 저자 작성.

- [평가] 북한의 무역 정상화는 코로나19하에서 이루어지는 제한적 무역 수준에 머물러 있으며, 완전한 무역 정상화는 이루어지지 못한 상황임.
  
- [무역 정상화 조건] 세관의 방역 능력 확충, 외화 마련, 북한 내 코로나19 상황의 안정적인 관리 등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져야 북한의 지속적인 무역 재개가 이루어질 수 있는데, 북한은 관리 역량이 부족하여 무역 정상화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됨.
  - 코로나19 상황에서 무역이 지속되기 위해서는 세관의 방역설비와 방역장이 설치되고 안정적으로 운용되어야 하며, 특히 북한은 중공업 생산설비가 밀집한 동해 연안지역에 수입의존도가 높은 원부자재를 공급할 수 있도록 나선항, 청진항, 흥남항 등에 방역장과 설비를 설치하고 운용하여야 함.
    - 방역장에서 사용하는 소독설비와 소독액, 그 외 방역장비 등이 지속적으로 공급되어야 하므로 재정 부담이 큰 상황
  - 수출과 수입이 균형을 이루어야 지속적으로 수출입이 가능한데, 북한은 현재 수입만 늘려가고 있고 수출은 사실상 중단되어 있어 현 국면을 지속하기 어려운 상황
    - 코로나19 직전 2년(2018~19년) 동안의 평균 무역 상품수지 적자는 약 20억 달러로, 북한경제가 수년에 걸쳐 감당하기 힘든 규모임.
    - 수출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UN 대북제재에서 금지하고 있는 광물, 섬유·의류, 농수산물 외에 다른 품목을 육성하여야 하나, 북한의 열악한 산업 상황을 고려하면 전망이 밝지는 않음.
  - 북한이 2021년 연말, 2022년 연초에 걸쳐 무역 재개를 시도하고 있는데, 만약 전염력이 높은 오미크론이 북한에 전염될 경우 북한의 코로나19 상황이 단기간 내에 악화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반대로 중국이 국경을 봉쇄하고 북한과의 무역을 통제할 개연성도 배제하기 어려움.
  - 북한은 아직까지도 아시아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유일한 국가임.
    - 북한은 국제사회에 백신 공급을 요청하면서도 여러 가지 근거(모니터링 거부, 백신에 대한 낮은 신뢰도 등)로 백신의 대북 반입을 승인하지 않고 있는데, 이 때문에 지난 2월에는 COVAX가 북한에 배정했던 백신 물량을 축소하기도 하였음.

## 5. 2022년의 주요 쟁점과 시사점

### 가. 무역 정상화의 방향성

■ [무역 정상화] 2022년에도 방역장과 설비를 지속적으로 확충해가면서 무역 정상화를 시도할 것으로 전망됨.

- 육로무역의 경우 방역 및 관리에 용의한 신의주를 중심으로 무역 재개를 시도할 것으로 전망됨.
- 신의주는 중국의 단둥 및 대련에 인접해 있어 해상·육상 무역이 모두 가능하고, 코로나19 유입 시 신의주만 봉쇄하면 확산을 막을 수 있는 장점이 있음.
- 2021년 방역장과 설비를 갖추었던 룡천항(해상무역)과 의주공항(열차무역)의 무역을 재개할 것으로 보이며, 이 경우 UN 대북제재 강화기(2018~19년) 물동량의 40% 이하<sup>21)</sup>를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
- 남포항, 의주공항, 룡천항의 처리 물량은 평년 대비 북한의 산업을 정상화하기에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나, 당장 2022년에는 북한의 강한 코로나19 방역기조와 부족한 방역 능력을 고려하면 충분한 수준으로 볼 수 있음.
- 그러나 신의주 중심의 무역 재개는 중화학공업이 밀집한 동해 연안에 생산 원부자재를 공급할 수 없는 문제로 이어지므로, 여건이 조성되는 대로 신의주 외에 동해 연안항만의 재(再)개항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됨.
- 즉 동해 연안의 재개항은 중화학공업 정상화를 추진한다는 점에서 북한의 코로나19 방역정책의 전환을 보여주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판단

■ [철도무역 재개] 2022년 상반기 북중 열차 운행은 비정기적으로 이루어질 전망이며, 하반기에 접어들수록 편성 횟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현재 접경지역인 랴오닝성의 코로나19 상황이 안정적이지 않고, 의주공항 방역장의 화물 수용량이 제한적인 상황에서 북한 열차를 이용한 수입만 재개하고 있어, 단기적으로는 북한의 정기적인 열차 운행·편성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됨.
- 2022년 1월 중에도 북중 열차 운행이 다시 중단되었는데, 이는 격리장이 설치된 의주비행장의 화물 수용이 포화상태에 이르렀기 때문임.<sup>22)</sup>

### 나. 무역 정상화를 위해 북한이 고려해야 하는 사항

■ [코로나 방역] 연내에 완전한 무역 정상화를 달성하기는 어려울 것인데, 코로나19 백신 접종과 방역체계 구축 없이 추진되는 무역 정상화는 북한의 사회·경제에 심각한 보건 위기를 야기할 것임.

- 충분한 방역체계를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무역 정상화를 서두를 경우, 오미크론의 북한 유입 가능성도 그

21) 룡천항과 의주공항의 방역장과 설비 규모가 알려져 있지 않아 연간 처리 규모를 추정하기는 어려우나, 위성사진을 통해 본 룡천항과 의주공항의 화물 처리시설을 합한 규모가 남포항에 비해 크지 않음을 고려하여, 이 두 세관의 연간 최대 처리 물량이 남포항과 같다고 가정하였음. 실제 처리 물량은 이보다 훨씬 적을 수 있음.

22) VOA(2022. 2. 25), 「북중 화물열차 운행 한달 ... 무역 정상화 조짐 없어」, <https://www.voakorea.com/a/6458014.html>(검색일: 2022. 3. 2).

에 비례해서 커질 것임.

- 북한에 코로나19가 유입될 경우, 약 1천만 명당 22만 명의 사망자<sup>23)</sup>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됨.
  - 북한은 코로나 확진자를 치료하기보다는 격리하는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는데, 대규모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해당 지역의 경제활동 자체가 중단될 가능성도 있음.
- 또한 코로나19 백신 접종과 방역체계가 구축되지 않은 상황에서 오미크론이 확산될 경우, 북한은 의료 시스템 붕괴와 사망자 폭증을 수개월 내에 압축적으로 경험할 수 있어 북한이 사회·경제적으로 감당해야 하는 혼란은 더욱 커질 것임.
- 결국 북한이 무역을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북한 주민들에 대한 최소한의 백신 접종으로 주민들의 증증화율을 최대한 낮추는 한편, 확진자 진단과 격리, 증증환자 관리 등 방역체계를 구축하여야 함.

■ [여름 재해 예방 및 복구] 특히 봉쇄와 차단 중심의 무역기조는 재해 발생에 매우 취약한 구조를 하고 있어 코로나19 방역체계 구축과 함께 현재의 포지티브 방식(봉쇄, 격리, 중단) 무역기조 변경이 필요함.

- 최근 기후변화와 지구 온난화로 한반도에 재해성 기상현상이 빈발하고 있는데, 열돔 현상(heat dome)에 따른 폭염과 국지성 폭우, 해수면 상승에 따른 해안지역 침수 증가 등을 꼽을 수 있음.
- 북한에 대규모 홍수나 가뭄, 폭염, 기타 전염병이 발생할 경우, 국제기구가 대규모 인도적 지원을 하더라도 지원물자가 세관 방역장에서 15~60일가량 격리를 거쳐야하므로 구호가 필요한 북한 주민에게 즉각적으로 도움을 줄 수 없으며, 1~3달 뒤에 지원이 이루어지는 문제가 발생함.
- 따라서 현재의 무역 기조를 유지한다면 자연재해 발생 시 북한이 스스로 재해 예방과 복구를 해야 하는데, 북한의 재해 대응 역량은 매우 열악한 상황임.

## 다. 대외협력 재개

■ [러시아 무역 재개] 한편 최근 북한이 러시아와 무역 재개에 대해 논의를 하고 있으나, 이는 경제적인 이유보다는 국제 정치적인 이유가 더 커 보임. 북러 친선 관계 과시와 대외협력 재개에 대한 메시지 전달이 주요한 목적인 것으로 판단되므로, 당분간은 정치적인 선언 등으로 전개될 전망이다.

- 먼저 러시아가 북한 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평년 기준 2% 이내로 작아 무역 재개의 경제적 효과가 크지 않음.
  - 러시아가 북한에 지원하는 지원물자(밀가루, 정제유 등)를 염두에 두고 북한이 무역 재개를 요청한 것으로도 추정해볼 수 있으나, 러시아 지원 물자 규모가 크지 않은 점, 극동러시아 코로나19 확진자 동향이 한국처럼 2월부터 증가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보면 북한이 러시아로부터 인도적 지원을 받기 어려운 구조임.
- 러시아 역시 우크라이나와의 전쟁 문제로 대북 협력 이슈를 후순위에 둘 가능성이 큰 상황임.
- 하지만 상술한 바와 같이 북한이 중국과 철도무역을 재개하고 스웨덴 외교관의 복귀를 협의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러시아와의 무역 재개 논의를 통해 국제사회에 북한이 대외협력을 재개한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음.

23) Justin Fendos(2022), "Northk Korea's ticking COVID timebomb." 2022년 상반기 KIEP 한반도 신경제 국제 세미나 발표자료.

- 러시아와의 무역 재개 논의는 단기적으로 북한의 대외 교역에 큰 영향을 주기는 어려운 상황이며, 그보다는 중장기적인 정책적 포석으로 해석하는 것이 적절해 보임.

■ [대외협력 재개] 2021년 국경봉쇄 정책에 일부 변화를 보인 것은 사실이나, 백신 수급과 방역체계 구축 없이는 대외협력이 실질적으로 재개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됨.

- 북한이 육로무역 재개와 러시아 무역 재개 논의 등 국경봉쇄 정책에 변화를 보이고 있는 것은 사실임.
- 그러나 아직까지 인적 교류(국경 왕래)에는 매우 신중한 입장이며, 자국민의 입국과 이동 통제 또한 엄격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등 대외협력 재개 여건이 조성되지 못한 것으로 평가되며, 이런 제약을 풀기 위해서는 북한에 대한 백신과 방역체계 지원, 지원을 이행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함.
- 2022년에도 북한이 중국과 러시아, 일부 유럽 국가, 동남아 체제전환국 등과 대외협력 재개를 시도할 것으로 전망되나, 산발적이고 일회적인 재개 논의 수준에 머물 것으로 전망됨.

## 라. 시사점

■ [코로나19 백신 협력] 결과적으로 무역을 정상화하여 산업생산을 정상화하고 경제난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국제사회의 백신 지원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남한의 백신 지원과 방역 협력이 북한의 대외협력 재개에 도움이 될 수 있으며, 이를 매개로 한 남북 대화 재개는 한반도 위기 상황 관리 및 평화 정착으로 이어질 수 있음.

- COVAX에서도 북한에 백신 지원 물량을 할당하고 있으나 북한 주민 전원을 접종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물량이며, 북한에는 백신 보관과 운반에 필요한 저온 유통 시스템이 열악한 상황임.
- 남한은 코로나19 방역과 관련하여 지난 2년 동안 코로나19 백신 접종과 방역에 대한 데이터와 충분한 임상 경험을 축적하고 있음.
- 코로나19 백신 접종과 방역을 매개로 한 남북 협력은 북한의 인도적 위기 발생을 예방하는 한편, 남북 대화 재개를 통한 한반도 위기 상황 관리와 북미 비핵화 협상을 촉진하여 한반도 평화 정착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KIEP**